

---

*The 8th Model Asian Union*  
(양서류)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016. 10. 28

Team Name : 양서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사회과학부 양성익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사회과학부 서동찬

## <서론>

### 1. 왜 아시아는 갈등하고 있는가

현재 많은 국가들은 지역적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유럽 대륙이 유럽연합(EU)으로서 연합체를 이루고 있으며, 남아메리카 역시 지역경제공동체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국가연합(UNASUR)을 구성하며 국가 간 협력을 늘리고 있다. 유럽과 남아메리카 뿐 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으로 점점 국가 간 협력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아프리카는 지난 2002년 국가 간 단결과 연대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을 설립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륙 위주로 지역적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위에 언급된 협력체만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잡한 국제관계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시아만 하더라도, 오랜 기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충돌지로 남아있었다. 2016년 현재도, 한국·일본·미국이 중국·러시아와 대항하는 형세의 정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베트남·필리핀·브루나이 등이 위치한 동남아시아 역시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지역 역시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시리아·레바논 등이 위치한 서아시아는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미국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아시아 내 지역에 따라 문화적 동질성이 낮고, 역사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크게 동아시아 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 남아시아 문화권<sup>1)</sup>으로 나뉜다. 각 문화권은 내부적으로 각국이 일정 부분의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권 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 대부분의 국가가 크리스트교를 믿는 유럽과 달리 각 국가 별로 다양한 종교를 믿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아시아 내 지역에 따라 문화적 동질성이 낮은 것은 아시아 연합체제 구성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 외에 국가 간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시아 연합체제 결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동아시아 내에서만 하더라도 국가 간 다른 역사 인식으로 인해 여러 부문의 협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 2. 역사를 통해 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를 진단하다 - 동양평화론

오늘날보다 훨씬 각국 간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나온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이론이 있다. 바로 안중근이 지난 1910년 뤼순의 감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이다. 주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으로 한정돼있었고, 동양평화를 이끌 주체를 일본으로 설정하는 등 일정 부분의 한계성은 분명하지만 안중근이 동양평화를 꿈꾸며 남긴 유산은 실용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현재 미완된 채로 남아있다.<sup>2)</sup> 그러나 당시 뤼순 고등법원 원장이

1) EBS (2014. 5. 20). 아시아의 문화권 [동영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51622&cid=51716&categoryId=51716> 에서 검색

2) 동양평화론은 ① 서(序) ② 전감(前鑑) ③ 현상 ④ 복선(伏線) ⑤ 문답의 5장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안

었던 일본인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와 가졌던 면담의 청취록을 통해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전달됐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ㄱ.일본, 청국, 한국이 위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서 개방하여 평화회의를 조직한 뒤 새로운 정책을 공표한다.

ㄴ.위순에 조직된 이 동양평화회의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모금 받아 재정을 확보한다.

ㄷ.은행을 설립하여 각국 공용화폐를 발행한다.

ㄹ.2개국 이상의 언어를 익힌 세 나라의 청년들을 모아 군단을 편성한다. 이로써 서로간의 우방의 관념이 싹틀 것이다.

ㅁ.일본이 패권의 개념이 아닌 지도국의 성격으로 한국과 청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간다.

ㅂ.위와 같은 평화회의가 효율적으로 유지된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 또한 자진해서 가입하려 할 것이다.

ㅅ.한, 청, 일 세 나라의 황제들이 로마 교황을 만나 맹세하는 의식을 가진다. 이를 통해 세계 2/3을 차지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신용 받게 될 것이다.

그 내용 중에는 현재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 연합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있으며 이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이론의 전제에 한계성이 존재하며 현 국제 정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충분히 가다듬는다면 아시아 연합 실현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론>

##### ①국가 연합 군사 훈련의 시행과 아시아 평화 유지군의 창설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통해 각국의 청년들로 구성된 하나의 군단을 창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그는 각국의 청년들이 서로간의 우애를 지니게 되어 상대국에 대한 우방의 관념이 생겨날 것이라 보았다. 이 주장을 재해석해, 국가 연합 군사 훈련의 시행과 아시아 평화 유지군의 창설을 제안한다.

오늘날 군사력은 각국의 힘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더 뛰어난 무기를 배치한다. 그러나 이는 이따금 타국에 대한 지나친 경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모두 타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되며 그로 인해 군비 경쟁 또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군사 연합을 통한 군사 정보 공유와 합동 군사 훈련 시행을 들 수 있다. 연합을 맺은 국가 간 자국의 군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지로 인한 불안감은 해소될 것이며 군사 훈련을 통해 각국은 상대국에 대해 우방의 관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자세한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각각 한 개씩 연합군 본부를 건설한다.

---

중근은 서론과 본론 사이인 전감까지 저술한 후, 사형이 집행돼 책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군사 연합에 가입한 각 국가의 군인들을 본부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병력을 모집한다.
- 1년 주기로 육/해/공군의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한다.
- 군사훈련은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의 영토, 영해 근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주 목적은 테러 방지 및 제압으로 선정한다.
- 부가적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연합국의 사회 안정 지원도 겸임한다.
- 연합에 가입한 국가는 서로간의 군사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한다.
- 예산은 각 회원국이 일정량씩 부담하여 마련한다.

## ②ADAC과 Asiaid를 통한 아시아만의 개발 원조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이 패권의 개념이 아닌 지도국의 성격으로 한국과 청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간다’고 말한다. 안중근은 당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도하여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아시아 대륙에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선진국·신흥 부흥국이 존재함과 동시에 미얀마, 동티모르와 같은 저개발 국가도 위치해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의 선진 국가들 차원의 개발 원조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것에 비해 훨씬 현실적일 것이며 이에 더해 같은 대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효용성도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륙 내에서의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위해 아시아개발원조위원회(ADAC)의 창설과 위원회의 활동의 일환인 아시에이드(Asiaid)의 운용을 제안한다.

자세한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서 인정한다. 또한 이 국가들은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 원조를 받고자 희망하는 국가는 해당 국가의 세부적인 상황(인력, 자원, 기술력 등)을 위원회에 공고한다.
- 선진국은 멘토링 희망 국가의 자료를 확인한 뒤 자국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담 지원한다.
-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 원조는 개발도상국 국가의 개발 지원 뿐 만 아니라 재난에 의한 피해의 복구나 긴급 지원 등의 사항도 해당된다.
- 아시아개발원조위원회(ADAC)에서 지원하는 아시에이드(Asiaid)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 또한 고려한 다방면적인 원조이다.

## ③프로젝트 비지던트(VISIDENT)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통해 여러 방면의 아시아 협력 방안을 모색했지만, 아쉽게도 교육이나 문화 부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2개국 이상의 언어를 익힌 세 나라의 청년들을 모아 군단을 편성한다. 이로써 서로간의 우방의 관념이 싹틀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청년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유럽 연합 결성의 교두보 역할을 한 유럽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sup>3)</sup>을 아시아에 맞게 변용한 프로젝트 비지던트를 제안한다.

3)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의 약자이다.

현재 아시아는 지역에 따라 문화적 동질성이 낮으며, 각 지역 간 그리고 각 국가 간 역사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협력은 물론, 국가 간 협력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젝트 비전트는 이러한 각 국가 간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문화 교류 뿐 만 아니라, 각국의 특화된 기술과 학문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세한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교육공동체를 창설해, 그 주도 하에 각국의 주요 도시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한다.

-모든 국가 내 학교의 설립 자금은 아시아개발원조위원회(ADAC)의 지원을 받는다.

-고등학교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언어를 필수적으로 공부하며, 각국의 문화, 역사 이해 등에 힘쓴다.

-대학교에서는 각국의 특화된 기술 및 학문을 배운다.

-각국의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학문을 따라 자유롭게 국가를 이동하여 수학할 수 있다.

#### <결론>

우리는 아시아 연합의 실현을 위해 군사, 개발, 교육의 세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같은 프로젝트들은 아시아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의 국가들이 하나의 같은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동시에 기존에 아시아 연합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많은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할 필요를 역설하고 싶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동아시아 포럼(EAF), 아세안+3(ASEAN+3), 한중일 협력 사무국(TCS) 등에서 아시아 연합 실현을 위해 각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 뿐 아니라 기업, 민간 사회 등에서 함께 노력할 때, 아시아 연합이 실현되는 날은 더 빨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1996). **21세기와 동양평화론**. 서울: 국가보훈처

배안석. (2008). 평화유지군으로서의 독일 연방군 : 2006 년부터 현재까지.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4, 41-55.

안중근 (1879-1910). **동양평화론 외**. 파주: 범우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2010).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서울: 채륜.

양성익, 이동재, 이현준, 김남건 (2013).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 **2013년 저현창의 지성 학생 논문집**, 18, 323-347.

유현석 (2013). **국제정세의 이해 : G2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4판)**. 파주: 한울아카데미.

McMichael, P. (2013). **거대한 역설 :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조효제 역). 서울: 교양인.